

천하만면 잠잠하여

1. 천마하천
2. 하리늘군
3. 만아위들
4. 민의의과
잠잠천천
잠을근사
하베헌들
여어사이
주소에
를람을수
경인지게
배로어심
하오늘보
여서이고
라어셔서

햇살큰저
된과빛들
일피얼
을들도글
생나임가
각누하리
말어시운
고서는채
주우주노
의리의레
죽에모하
복제습는
바주지소
라시켰리
라니다가

이화지알
세늘옥렐루
상양권루
에식세야
오되지알
신신취렐
주에없루
게수고야
손민어하
각군톤는
흥의그늘
성주늘이
다시없을
하로도리
라다다네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정논의
2. 강물의
가물로
강새를
뿌리처럼
떠들며
평화나
가운들
수난불
의세월
처럼
월

A A7 D Dm F#7 Bm B7 E E7

회년을
향해함께
가느길
주의약속
군개민으며
일곱

D A B7 E7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번씩일
곱번
넘어
져도
약속
을
군개
민으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 A7 D Dm A/E E7 A

시편 129, 130편

<p>129편</p> <p>1,2 이스라엘이 하는 말, “젊어서부터 받은 많은 학대에도 ○ 나는 꺾이지 않았었지.</p> <p>3 밟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듯이 ○ 내 등에 고랑같은 상처를 내었지만</p> <p>4 의로우신 주께서는 ○ 악인들의 명예를 박살내셨다.</p> <p>5 시온의 원수들아, ○ 모두 망신당하고 물러들 가라.</p> <p>6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 뿔을 새도 없이 시들어 버리리라.</p> <p>7 베는 이의 손에도 ○ 묶는 이의 아름에도 차지 않으리니</p> <p>8 지나가는 이 아무도 “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 하는 사람 없구나.</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130편</p> <p>1,2 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 주소서. ○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p> <p>3 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p> <p>4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p> <p>5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p> <p>6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웁니다.</p> <p>7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웁니다.</p> <p>9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p> <p>8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마르코(마가)복음 12:13-27

<p>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p>	<p>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있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